



##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반도체 밸류체인,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 강세

###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096.93pt (+8.18%)	967.81pt (+6.19%)	1,293.40pt (+9.0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17.50 원 (-9.0 원)	4.3060% (-4.2bp)	7,443.25pt (+0.37%)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6,170 억	-5,118 억	-945 억
외국인	-19,850 억	+3,089 억	-23,922 억
기관	+25,043 억	+2,009 억	+22,40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에 매도 사이드카 및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 과열 우려에도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중단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이날 KOSPI는 8.18%, KOSDAQ은 6.19%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46.0조원, KOSDAQ은 약 10.2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금융과 제약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2.5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도주 낙폭 과대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 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상대적 약세였던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인바운드 소비 증가 전망에 화장품, 백화점, 미용기기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젠슨 황의 방한을 계기로 상승했던 IT S/W와 피지컬 AI 관련주가 이벤트 소멸로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18.39%), SK하이닉스(+15.91%), 삼성전자(+8.97%)가 올랐고, 현대오트모터(-8.64%), NAVER(-7.89%), LG전자(-7.46%)가 내렸습니다.

###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